

대법은 절대적으로 원용불파(圓容不破)한 것이다. (박수)

제자: 제자들은 4월 25일 이후, 대법(大法)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대법에 대한 언급을 듣고 행운으로 대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2개월이지만 대법의 박대정심(博大精深)함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부: 나쁜 사람, 그는 바로 나쁜 것을 들을 것이고,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들을 것이다! 사악한 자가 대법을 공연히 욕할 때, 그는 필경 “法輪功(파룬궁)” 세 글자를 제기해야 된다. 우리 이 수련생은 바로 “法輪功(파룬궁)”을 보았는데, 바로 이 좋은 것을 본 것이다. (박수) 불법(佛法)은 사람이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악이 나쁜 사람을 이용한 때 한 차례 우리에게 대한 파괴는, 사실 모두 우리에게 대한 홍보다! (열렬한 박수) 그러나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의 마음은 나쁜 것으로, 이 점은 틀림없다. 그것은 그의 생명의 위치이다.

제자: 자신의 대법에 대한 더욱 높은 인식을 어떻게 견정(堅定)히 합니까?

사부: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친 것은 법리(法理)이다. 수련생들도 당초에 단지 이 법리가 좋다고 느껴서야 비로소

별이 있는가? 구별이 없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속인의 경지를 초월해야 하고 속인의 경지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속인은 이렇게 낮고 당신은 그렇게 높는데, 당신이 당신보다 그렇게 많이 낮은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당신이 이 사람을 적으로 여겼을 때 당신도 이렇게 낮게 떨어져 내려왔으며, 속인 여기로 떨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므로 신(神)은 여태껏 사람을 적으로 여겨본 적이 없으며 사람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자비의 각도에서 말하더라도 사람을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을 파괴하는 것과 정법(正法) 그것은 별개의 일이다. 무지(無知)한 상황에서 덮어놓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사람은 무엇을 했든지 모두 감당해야 한다. 당신들 여기 앉은 모든 수련인은 당신들이 역사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감당했다. 사람이 무엇을 했더라도 모두 감당해야 하는바, 자신이 피동적이었다거나 혹은 함부로 지껄였거나 혹은 압력 앞이라서 터무니없이 말했다거나 혹은 사악(邪惡)에 의해 조종당했다고 여기지 말라.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제자: 지금에야 비로소 사부님께서 가장 자비하신 방식

으로 인간세상에서 법을 바로잡으시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위에서 법을 바로잡는 것은 이것보다 더욱 어려운지 사부님께서 한두 가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사부: (웃음) 사실 위의 생명, 그는 사람처럼 그렇게 많은 나쁜 사상이 없으며, 그는 사람의 사상이 없다. 그러나 그도 그 자신의 관념을 고수(固守)할 수 있다. 매 생명이 아주 좋은 시기부터 패괴(敗壞)되어 내려올 때, 그는 감각이 없고, 중생들도 다 자신이 패괴되고 있음을 모른다. 중생들은 모두 자신을 자신보다 못한 생명과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 아직도 모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모두 다 이렇게 기능하고 있는데, 사실 그는 패괴되어 내려온 이후의 인간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우주가 생명에게 요구한 표준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신(神), 그는 비록 인간의 사상이 없으나, 그도 그의 그 경지의 원시적인 표준에 부합되지 못하게 되었다. 정법 중에서 그들이 자신을 보전(保全)하려 할 때 일종의 세력과 장애를 형성하여 정법(正法)을 교란하고 있는데, 그 엄중한 정도가 정법을 파괴하는 데 이르렀다. 우주의 법리는 똑같은 것으로서 누가 무엇을 했든지 자신이 모두 갚아야 한다.

안 된다. 그러므로 법(法)은 엄숙한 것으로서 매 대법제자마다 처해있는 매 한 경지의 표준에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바 이는 엄숙한 것이다. 수련 과정 중에서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해야 하며 그럭저럭해서는 안 된다. 대법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고, 우주의 일체를 만들 수 있는바 그에 계는 부동한 층차의 법리가 있다. 매 한 층의 법리는 모두 전체 법과 관통된 것으로서, 상하(上下)로 관통되고, 내외(內外)로 관통되고,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에 관통되며, 상호 관통된 것인바 어떠한 층차도 모두 단독으로 관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어느 각도에 서서 말하더라도 그는 모두 원용(圓容)한 것이고, 분명히 말할 수 있으며, 깨어지지 않는 것이고, 법리상에서 일체를 원만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모두 그가 육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진리(真理)의 무소부재(無所不在), 무소불능(無所不能)을 원만하게 표현해 낼 수 있다. 그는 일체 좋지 못한 일을 좋은 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는 우주 중의 일체와 중생을 구원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成)·주(住)·괴(壞)·멸(滅)이 존재하지 않았던가. 대법은 궤멸을 향해 가고 있는 일체를 다시 새롭게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그는 바로 일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만능(萬能)이다. 그러므로 이

런생들이 모두 원만에 이르는 하나하나의 큰 관(關)을 넘  
어 갈 수 있는지를 보는 나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당신들  
은 아는가?! (열렬한 박수)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하다. 위  
대한 신(神)이기에 손색이 없다! 내 기억에 노스트라다무  
스의 그러한 한 마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기간 동안  
사람과 신이 함께 있는 날이 있다고 했다. 그가 가리킨 것  
이 무엇이든지 막론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들을 정말  
속인으로 볼 수 없다. 사람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당신  
들은 내려놓을 수 있으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당  
신들은 감당했다. 아, 그러므로 사람들도 당신들을 이해하  
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웃음)

제자: 제자가 수련 중에서 대법은 엄숙한 것이라는 것과  
대법은 원용(圓容)하다는 것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사부: 대법(大法)은 엄숙한 것이다. 한 사람이 수련하여  
원만(圓滿)에 이르러 하는데 엄숙하지 않아서야 되겠는  
가? 대법에 조금의 편차가 있어도 수련하는 사람으로 하여  
금 원만하게 할 수 없는데, 그 사법(邪法)이 사람으로 하  
여금 위대한 신으로 수련 성취하게 할 수 있는가? 절대로

제자: 사부님과 대법이 우리에게 준 것은 너무나 많지만,  
도리어 우리가 지불한 것은 너무나 적다고 깊이 느껴지는바  
특히 대법과 국내제자들이 이토록 준엄한 고험(考驗)을 감  
당할 때 우리는 확고하게 착실히 수련하는 것 외에 또 마땅  
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여러분은 오직 정진(精進)하여 착실히 수련만 하  
라. 오직 우리의 연공(煉功)을 교란하는 사람만 없다면 천  
상지하(天上地下)의 중생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을 것이  
다. 왜냐하면 누가 정법(正法)을 교란하면 장차 모두 도태  
되기 때문이다. 사실 대법제자도 다만 수련하기 위함에 불  
과할 따름이며, 구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별로 없다. 개별적  
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에게 시간을 주어  
인식케 하면 된다. 당신이 욕하고 당신이 공격해도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대하지 않을 것인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수련하면 된다. 사람이 무엇을 했다면 그는 모두 자신이 감  
당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틀림없다.

제자: 다련(大連) 제자가 사부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이전 한 시기에 어떤 보도원, 심지어 분보도소장

(分站長)까지도 집에 있는 사부님의 법상(法像)과 대법 책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련생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법과 대법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부: 이런 문제를 제출하지 말라. 우리 어떤 사람은 대법이 상해(傷害)를 받거나 손실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일부는 사람의 방법을 좀 이용하여 대처하려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되도록 대법 책을 잘 보호해야 하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좋다. 만약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대법제자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자: 신장(新疆) 쿠얼러(庫爾勒) 전체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사부: 이렇게 많은가, 그럼 내가 함께 읽겠다.

제자: 무단장(牡丹江) 제자가 사부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베이징 인정호(人定湖) 공원, 따징(大慶) 수 만(萬)의 제자, 난창(南昌) 81공원 전체 제자, 베이징 항공부와 육원(六院) 제자 그리고 대만수련생들이 사부님을 그리워합니다. 텍사스 주 오스틴 전체 대법수련생, 친황다오(秦

동안, 인간 세상의 갖은 풍파를 겪어 세상의 모든 집착과 일생 동안 추구해 온 것이 그저 그런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자신 또한 명백히 깨달았다면 또 내려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나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아주 어렵다.

제자: 이번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에서 발생한 일을 통해 저에 대한 계발과 제고는 아주 큼니다. 곧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관건적인 시각에 眞(眞)· 善(善)· 忍(忍)을 해내기란 역시 아주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진(眞)”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말을 했으며 완전히 선의(善意)에 입각하여 그들은 그 어떠한 수련인의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평화로운 심기로 참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진정하게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진수(眞修)제자들은 사부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사부: 맞다. 실천 중에서 나는 이미 보았다. 나는 “나의 한 가지 소감” 중에서 쓰기를, “사람마다 뜻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 일생에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나는 이런 수련하는 사람들의 원만(圓滿)을 책임질 수 있다. 나의 수

그러나 그가 곧 하늘이 정한 나이에 이르러 그는 수련을 하게 되었다. 수련하지 않으면 그저 그런데, 일단 수련을 하기만 하면 바로 아주 정진(精進)한다. 보아하니 이 사람은 정말로 괜찮다. 나이가 많은 적든, 나 역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장삼풍(張三豐)은 70여 세에야 비로소 도(道)를 얻었는데 130여 세를 살았다. 70여 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수련을 시작하여 정식으로 수련했다. 다시 말해서 수련은 나이에 있지 않으며, 당신이 정진(精進)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본다. 만약 정말로 생사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떤 나이이든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무엇하겠는가, 이미 법을 얻었으면 수련해 나아가겠다. (박수) 진정으로 자신을 수련하는 사람으로 보고 자신을 속인으로 보지 않는다면, 당신 생명은 끊임없이 수련하는 중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므로, 이 생명이 곧 끊임없이 연장되는데, 당신 수련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 그는 정진하지 못하는데, 정진하는 정도가 정말로 금생(今生)에 원만(圓滿)을 이룰 수 없는 정도라면, 더 연장해 주어서는 안 되므로 수명이 다 되면 그를 가도록 놔둔다. 금생에 또 수련을 성취할 수 없고 내세의 일도 또 지체되므로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가게 한다. 바로 이렇게 된 일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지난 몇십 년

皇島) 대법수련생, 제일군의대학(第一軍醫大學) 대법제자, 선천(深圳) 제자들이 존경하는 사부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정말 좋다! 정말로 이런 제자들이 좋다.

제자: 허베이(河北), 산하이관(山海關), 차오양(朝陽), 후베이(湖北)의 잔장(潛江), 미국 중부 제자들이 사부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제자: 여러 해 배워왔고 또 날마다 법 공부를 하지만 눈앞의 이런 형세 문제에 부딪혀 조금만 복잡해지면 곧 망연자실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다 이치에 맞지만 자신은 오히려 법을 사용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관건 문제를 회피하고서 간단히 기계적으로 참습니다. 내심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온전히 지키며 착오를 범하려 하지 않는데, 이 속의 집착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사부: 이것은 그다지 무슨 대단할 것이 없다. 다만 결심하는 문제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법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정념(正念)을 견정(堅定)히 하

면 집착은 제거하기 쉽다. 법으로 옳고 그름을 가늠해야 하는데 사실 법 공부를 많이 하는 자체가 바로 좋지 못한 것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 사부님께서는 『장춘보도원법회설법』 77쪽에 이런 한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죽은 사람을 본보기로 세우고 산 사람을 내세우지 않는다(老樹死人不可樹活人).”를 사부님께서 명시(明示)해 주십시오.

사부: 바로 과거에는 늘 죽은 사람을 본보기로 내세우기 좋아했다는 것이다. 그가 생전에는 얼마나 위대했다고 하며 죽은 후에 사람들은 비로소 그를 기념한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는 기념하지 않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쩌면 어느 날 또 사고를 범할지도 모르니 내세웠다가 다시 타도하면 처리하기가 좋지 않으므로, 흔히 죽은 사람을 내세우고 산 사람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다! 사실 한 사람을 좋다고 말할 때 또한 반드시 이 사람을 무엇이든 다 좋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바 속인이 어떻게 잘못이 없겠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가 어느 방면에서 성취가 있다고 말하면 되고,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다시 착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방면에서 사

은 차림새에 주의해야 한다. 천상(天上)에서 신불(神佛) 보살(菩薩)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장관(莊觀)이고 신성하며 아름답다. 그들의 그 피부는 극히 미시적인 입자로 구성된 것이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그 피부가 어느 정도로 부드럽겠는가. 그 때가 되면 특별히 꾸밀 필요가 없다.

제자: 사부님께서는 『전법륜(轉法輪)』 중에서, “당신이 하늘에서 정한, 원래의 생명 노정을 지나 나중에 이어온 생명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연공하는 데 쓰라고 준 것이므로, 당신이 사상적으로 조금이라도 편차(偏差)가 생기면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부님께서 구체적으로 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수련한 지 3년 남짓 되었는데, 온몸의 여러 종류의 질병이 다 나았으며 또한 몇십 년 동안 항상 따라다니던 약탕기를 떼어버렸습니다. 현재는 비록 60여 세이지만 신체는 40여 세 때보다 더 좋습니다. 수련 외의 여유 시간에 일부 힘이 닿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사부: 당연히 된다. 오직 법공부와 연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다 된다. 하늘에서 정한 나이를 초과했다는 것은, 사람은 일생 중 다만 몇십 세를 살 수 있는데, 그 연령에 도달하면 곧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원만(圓滿)은 당신이 고생스러운 수련을 거쳐 당신 수련의 이 한 갈래 길을 다 걸어서 원만의 경지에 도달해야 그것이 바로 원만이다. 그러나 홍법은 단지 당신의 수련과정 중 한 대자대비(大慈大悲)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당신 개인 제고 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당신이 홍법에서 한 일체에 대해서는 속인의 독립된 복보(福報)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생(來生)에 다시 사람으로 되려 하지 않고 원만(圓滿)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당신의 수련 중의 자비와 중생구도에 연관되기에, 홍법은 당신이 수련 중에서 수립한 위덕(威德)의 일부분으로 된다.

제자: 여자아이가 예쁘게 꾸미기를 좋아하는 것은 천성(天性)인가요 아니면 집착인가요?

사부: 내 생각에 여자아이가 좀 꾸미는 것은, 내가 보기에 현재 그녀를 집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여자는 바로 이런 천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내가 보기에 여자는 이 방면에 마땅히 주의해야 한다. 지저분하면 누가 보아도 좋지 않다. 그러나 지나치게 요염하면 그것은 또 반대로 나간다. 내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속인이 보아도 아마 보기가 좋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사람

의 지혜는 정말로 한계가 있다.

질문: 활동을 하려고 결정했을 때 보도소의 책임자나 혹은 총보도소의 책임자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깨달은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사부: 나는 당신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알고 있다. 사람이라, 늘 사람의 사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가늠하고 있는데 영원히 명백하게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나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겠다. 당신 속인의 관념으로 나와法輪大法(파룬파파)의 이 사람들을 가늠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다 명백하게 생각해내지 못하고 투철하게 연구해 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중난하이(中南海)에 간 그런 수련생들이 이렇게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이 있느냐고 하는데, 우리 매 수련생의 마음속에는 모두 우습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 우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속인사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히 수련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슨 명령이 필요 없고 무슨 동원(動員)이 필요 없으며, 매 사람마다 자각적으로나 비자각적으로, 혼자일 때나 여러 사람과 함께할 때나 모

두 대단히 잘할 수 있다. 수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수련인은 자신이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수련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난하이(中南海)에 간 사람들은 묵묵히 구호도 없었던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누구도 외치지 않고서도 이런 강한 조직성이 있어서 모두 거기에 서서 움직이지도 않았는가 하고 생각한다. 군인이 되어도 훈련을 해야만 이 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류사회 중의 속인은 누구도 인류가 패괴(敗壞)한 근본 원인이 인심과 도덕사상의 패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당신이 보라. 만약 사람의 마음이 바르게 된다면, 도덕사상 수준도 승화되어 올라갈 수 있으므로 그는 당신이 조직할 필요가 없으며,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두 알다시피 매년 연공(煉功)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이 흔히 이야기하거나, 걷거나 모두 무엇을 하고 있다가도 음악소리가 나기만 하면 짹하니 질서정연해지는 것으로, 동원하는 사람도 없으며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없는데, 똑바로 서 있으며 군인들보다도 질서가 더 정연하다. (박수) 왜냐하면 수련인은 내가 어디에서든 마땅히 잘해야 함을 알기 때문인데 하물며 우리 대

사부: 홍법(洪法) 효과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힘이 미치는 대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그 정도까지 하라. 구세력이라, 내가 말한 구세력, 그것은 진정한 마(魔)가 아니며, 그것은 바로 그런 패괴(敗壞)된 부동(不同)한 층차의 생명으로, 정(正)과 부(負)가 모두 있다. 그것들은 모두 그것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의 도움이 나에게는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 저애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홍법 진척도 저애를 받는바, 신수련생이 법을 얻는 것도 아주 곤란하며 어떤 사람은 법을 얻었어도 또 그것들의 농간으로 법에 대해 무감각하며 또 배우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해결 중에 있으므로 이런 곤란을 당했다고 놀랄 것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중이다.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홍법(洪法)이 원만(圓滿)과는 무관하지만, 홍법은 가장 신성한 일로서 진정으로 법을 얻지 못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홍법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도 마땅히 자신이 돌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부: 홍법과 원만은 두 가지 개념이다. 이 두 개념 사이



과는…… 있는지 없는지.

사부: 불법(佛法) 수련에 8만 4천 법문이 있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가 말한 것으로서, 이는 석가모니 부처가 그를 사람에게 알 수 있게 말해준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석가모니 부처 그도 최종적인 우주의 주(主)가 아니므로, 최종의 전체 우주의 더욱 큰 범위의 일은 그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는 그의 경지 중에 입각하여 말한 것으로 수련에 8만 4천 법문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인바 역시 잘못이 없다. 사람에게 10만 법문이 있다고 말해 준다 해도 아마 사람은 알지도 못할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보전대, 석가모니 부처가 말한 8만 4천 법문(法門)의 수련방식은 모두 삼계(三界) 내의 중생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다른 공간의 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태껏 사람에게 말해준 적이 없으며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주 중에서 지구와 유사한 이런 환경은 지구 하나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우주의 중심 위치가 아니다.

제자: 전 한동안 연공 팀을 조직하여 홍법(洪法) 활동을 했습니다. 수련생들이 일정 기간 투입되었는데, 일부 활동은 효과가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법 중에서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수련생들이 돌아간 후에는 경찰들이 피운 담배꽂초마저 다 주웠으므로 땅은 휴지조각 하나 없이 깨끗했다. (박수) 그들은 거듭 어떻게 규율이 이렇듯 엄격하고 명확한가 하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 수련인은 정말로 속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속인의 사상은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의 사상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 그들은 속인인지라 영원히 인간의 이기적인 사상으로 일체를 보고 대할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사상은 또 매우 복잡하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찰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후천적으로 형성한 자신의 부동(不同)한 관념으로 이 세계와 일체 사물을 대한다. 그러나 이런 수련하는 사람은 속인을 초월한 것으로서, 그들은 속인의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수련인을 똑똑히 인식할 수도 없다. 대법수련생은 어디에서든지 모두 아주 잘할 수 있으며,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法輪功(파룬궁)은 전 세계의 어떠한 정부와 민족에 대해서도 모두 백 가지 이로움만 있을 뿐 해로움은 하나도 없다. (박수)

제자: 진시황(秦始皇)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해했든

지 천상변화(天象變化)이기 때문에 전혀 업력(業力)이 없습니까?

사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사람 됨됨이에 따라 관계가 있는 것이며, 어떤 것은 천상(天象)이 조성한 것이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것은 역사의 필연으로서 천상이 조성한 것이다. 한 정권의 변경도 마찬가지로서, 이 한 수의 바둑은 천상(天上)의 신(神)이 이미 거기에 둔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과정 중에서 어떤 수단을 취하여 세인(世人)을 대하느냐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사람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한 속인에게 권력, 지위가 생겼을 때, 그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하고 그의 생활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것은 그 자신의 일이다. 어떤 사람이 그의 아주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럼 내세(來世)에 복보(福報)를 받는다. 일생에 다 받지 못하면 내생에 또 받는데, 어쩌면 몇 생(生) 동안 큰 벼슬을 할지도 모르는 등 아무튼 타고난 복이 매우 커서 일생동안 다 누리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많고 많은 나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본인이 도덕이 고상하지 못하고 흥금이 편협하면 나쁜 일을 아주 많이 할 수 있다. 많이 하면, 수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또 악보(惡報)를 받

막심하여 용맹정진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안 됩니다. 저는 때로는 자신이 사부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부님의 자비(慈悲)에 면목이 없는데 책을 많이 읽고, 법 공부를 많이 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정말로 견정(堅定)하게 착실히 수련하고 싶습니다. 다른 공간을 좀 보게 되거나 천목(天目)이 열리는 것 등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이 방금 한 이 말은, 나는 정말로 견정(堅定)하고 착실하게 수련하고 싶다는 말이다. 당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써낸 것이든, 이 한 마디 말은 순진(純眞)한 것으로서 이는 당신의 자아(自我)이다. 그러나 뒤의 말은 즉시 또 후천적 관념에 의해 교란을 받았고, 그래서 당신은 정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 후천적 관념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정말 정진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책을 많이 보아야만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 당신은 생각하지 못했는가. 당신이 정진할 수 없는 자체, 그것이 바로 한 가지 가로막는 형식이다. 이 형식을 돌파하고 나서 당신이 보라 어찌된 영문인가?

제자: 불가(佛家) 수련에는 8만 4천 법문(法門)이 있다고 하는데, 각 층차(層次)를 포함합니까? 그럼 다른 공간

어떻게 됩니까?

사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현재 진정으로 대법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몇 사람인데, 당신은 그가 기세를 아주 크게 부린다고만 보지 말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모두 감당해야 한다. 일부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은 정말로 나쁜 것이며 참으로 나쁜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 한마디 말인데, 법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 부처는 인연 있는 사람을 제도한다. (박수) 사람이 불법(佛法)을 파괴하려 한다면 큰일 날 것이다.

제자: 저는, 최근에 발생한 일이나 사부님의 6월 2일자 경문 “나의 한 가지 소감”이 많은 해외 제자들에게도 한 차례 원만(圓滿)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아(自我)와 사람의 일체 관념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고험(考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맞습니까?

사부: 모두 잘못이 없다. 매 사람마다 모두 부동(不同)한 인식이 있는데, 모두 잘못이 없다. 그러나 깨달은 것은 모두 아주 정확하다.

제자: 저는 늘 동요되는데, 매번 법회 후에는 늘 후회가

는다. 악보란 그것을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라. 아마도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며 동냥하거나 고통을 겪을 것이다. 악(惡)이 너무 커서 일생에 악보를 다 받지 못하면 몇 생 동안 악보를 받을지도 모른다. 노인들은 사람이 대난(大難)이 닥쳐오는 것을 보았을 때, 항상 전생에 좋은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웃음) 말한 것이 정말로 맞다.

제자: 연(緣)도 물질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연(緣)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부: 쇠뿔 끝을 파고 든 것이다. 물론 물질적인 요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연(緣)을 나는 이미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했다. 그것은 일종의 표현이며 동시에 또한 일종의 실질적 연계(連繫)이다. 그러나 이런 실질적 연계는 속인상태에서는 표현되지 않는다. 나와 당신을 실 한 가닥으로 묶어놓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함께 이어져 있다는 이런 뜻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공간의 체현(體現)인 것으로서 사람은 보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또 똑똑히 말할 수 없어서 연(緣)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인데, 연(緣)이 있다거나 연분(緣份)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우주 중의 일체는 사실 모두 물질로서, 내가 말했듯이 정신이 바로 물질이고 물질이 바로 정신이다.

제자: 마치 모든 정법(正法)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많은 덕(德)을 쌓아야만 비로소 남자 몸으로 환생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부처는 오직 남자모습일 뿐 여자모습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남자 몸을 선택하셨으며, 여불(女佛)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부: 나는 여러 차례 설법 중에서 이 문제를 이미 언급했었다. 남불(男佛) 여불(女佛)은 모두 있으며, 남여래(男如來) 여여래(女如來)도 다 있다. 사람이 수련 중에서 나한과위(羅漢果位)에 도달했을 때에는 바로 삼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한은 다만 한 과위뿐만이 아니라, 초과나한(初果羅漢)이 있고 정과나한(正果羅漢)이 있으며 대나한(大羅漢)이 있다. 나한과위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가 남자든 여자든 이 층차 중에서 원만(圓滿)하게 되면 그것은 모두 남체(男體)의 모습이다. 나한과위는 삼계를 벗어난 첫 과위이다. 보살과위(菩薩果位)에 도달한 이는 대보살(大菩薩) 소보살(小菩薩)을 막론하고, 당신이 남자가 수련해 올라왔든 여자가 수련해 올라왔든, 모두 여체(女體)의 모습을 나타낸다. 당신이 수련해 낸 신체가 보살 경지 중에서 원만(圓滿)한 것이라면, 당신의 수련과정 중에서

이 더욱 간고(艱苦)하여 더욱 위대한 것을 체현해 낼 수 있으며, 높이 수련할 수 있는바 그것은 이런 관계이다.

제자: 선양(瀋陽) 제자가 사부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法輪大法(파룬파파)는 이미 세인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사부: 지금 보기에는 이렇다. 우리는 조용히 하고, 사회를 교란하려고 하지 않으며, 수련인으로 하여금 안정된 환경 속에서 수련하게 하려고 한다. 보아하니, 이번에 우리를 단번에 세계무대로 밀어 올려놓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도 이로 인해 유명인사가 되었다. (웃음) 말을 하고 보니 역시 아주 의미가 있는데, 우리 수련하는 사람은 이럴 생각이 없다.

제자: 어떤 사람은 애써 반대하고 일부 인심(人心)을 미혹(迷惑)시키는 근거 없는 말들을 퍼뜨려 일부 인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기회를 잃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만 대법을 파괴한 사람이 조성한 부면적인 영향을 만회할 수 있는지요. 인위적으로 대법을 파괴하는 사람 그들의 장래는

여기에 있게 되는 것으로 인류사회의 형식이 철저하게 파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속인사회의 이런 형식을 유지해야 하는바 그것도 우주대법이 중생에게 개척해 준 가장 낮은 한 층차이므로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에서 수련 제고해야 한다. 이런 환경이 있어야만 우리는 가장 빠른 속도로 자신을 제고할 수 있고, 자신을 개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경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인류는 아주 좋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욱 빨리 수련되게 할 수 있다. 인류에게는 아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리(眞理)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련 중에서 내려놓아야 할 집착이다. 오늘날의 사람이 법을 배우는 것과 고대의 사람이 법을 배우는 것에서 어느 쪽이 더 잘 수련하겠는가? 사회적인 요소는 많지 않지만 관건은 대법이 사람을 제도하고 있고, 또 정법시기(正法時期)의 수련생이기에 나는 대법이 더 높이 수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대 그 사회의 사람들은 모두 신(神)을 믿었으며 진도(眞道) 진법(眞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높게 수련될 수 없었다. 사회 전체가 모두 이해할 수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도덕 표준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난(難)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욱 좋지 않을수록 우리의 수련

모든 신체는 다 여자 몸으로서, 당신의 장래의 신체는 바로 여자이다. 물론 신, 그는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고정적인 신체 그것은 바로 이러하다. 만약 한 사람이 부처로 수련 성취했다면 그럼 모두 남자 몸이다. 만약 여래불(如來佛)로 수련 성취하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 그의 본래(本來) 몸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그의 원래(原來) 생명이 결국에 무엇이든 곧 그것으로 나타난다. 원래 세간에서 수련하는 과정 중에서 신체는 부동(不同)한 것으로서, 여래불(如來佛)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의元神(원신)이 무엇이든 바로 그 몸이다. 물론 특수한 것도 있으나, 우리는 보편적인 현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되풀이하여 전생(轉生)한 것으로,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복 받는 것과 인연관계로 정해진다. 그가 여자 몸으로 보이지만 아마 남자가 전생(轉生)한 것일 수 있으며, 또 일부 남자, 그는 여자가 전생한 것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업보(業報)의 문제가 존재한다. 나 여기에서 여성에 대해서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불교 중에서도 말한 적이 있으며, 석가모니도 직접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바, 사람이 남자 몸으로 전생(轉生)하려면 전생에 많은 덕(德)을 쌓아야만 비로소 남자 몸으로 전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신이 남자였든 여자였든 당신이 좋지 못한 일을 했거

나 또는 어느 방면에서 좋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당신은 내세(來世)에 아마 여자 몸으로 전생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이러했다. 현대의 사람은 이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래에는 또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주 많은 여 제자들은 수련한 것이 대단히 좋다. 법을 얻기 전에 어떤 사람은 또 특별히 여자 몸으로 전생하여 수련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역사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아마 여자는 큰 업을 쉽게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자: 제가 주위 사람에게 홍법(洪法)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모두 우리가 이렇듯 몰두하여 법 공부, 연공, 홍법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우리는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최대한도로 속인사회의 상태에 부합된 수련을 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법을 얻는 데에 장애를 주었다고 느끼는데, 우리는 이미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사부: 그렇게 엄중하지는 않다. 잘 하지 못했으면 다음에 바르게 고치면 된다. 여러분은 모두 더욱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얻게 하고 세인(世人)을 구도(救度)하려고 생각했다. 인간세상에서 어떤 것이든 모두 무상(無常)한 것이라, 어떠한 것이든 당신은 모두 태어나면서 가져올 수 없

진입한 것으로 겨우 보통사람의 경지를 벗어난 것이다. 인간으로 놓고 말한다면 그는 신통(神通)을 크게 드러내고, 인류의 일체는 모두 그를 속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 일체는 모두 분자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층의 분자와 세포가 개변되기만 하면, 그는 날 수 있고 이쪽에서부터 벽을 걸어 지나갈 수 있으며, 눈은 단번에 분자가 아닌 그 밖의 다른 한 층 입자로 구성된 공간의 상황을 볼 수도 있다. 물론 더욱 높은 것은 아직 볼 수 없으며 더욱 미시적인 것도 아직 보아낼 수 없는데, 그의 층차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종심(縱深)으로 수련해 나가 수련이 최고 층차에 달하면, 그가 낮은 층차에서 채용했던 방법은 더는 사용할 수 없다. 공을 연마하는 그의 이런 모든 방법과 수단은 사용할 수가 없다. 완전히 고층차에 이르면 수법(手法)은 필요 없고 그는 단지 조용히 수련할 뿐 어떠한 동작도 없는바, 이 뜻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법수련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대다수 혹은 모든 수련생들이 표면상에서 시작하자마자 개변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오늘날 대법을 배우는 사람이 1억이 있는데 매 사람마다 가장 표면에서 개변시킨다면,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바 오늘 이 세계는 바로 1억의 신(神)이

당신을 미시적인 데에서부터 표면으로 끊임없이 동화(同化)시키고 있기 때문인데, 속도가 아주 빨라 매일 사람이 변하고 있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다. 삼계(三界)에 이르기만 하면, 실제로 삼계 내의 모든 입자로 구성된 사람 몸을 모두 인신(人身)이라 부른다. 일단 삼계로 진입하기만 하면 단번에 속도가 느려져, 심지어 정체(停滯)되어 나아가지 못한다. 사람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다시 말해서 당신 사람 여기가 心性(심성)을 수련해서 제고되면 사람이 변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수련은 먼저 표면부터 개변하는 것을 취하므로 시작하자마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 여러분이 알다시피 도가(道家)에서 채용한 방법은 수련 중에 단(丹)을 삼켜야 하는데 바로 되도록 빨리 수련인으로 하여금 병을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다. - 당신 표면신체 안에 숨어있는 좋지 못한 모든 것, 병업(病業) 등을 몰아낸다. 모두 방출해 내면 이 신체는 정화(淨化)된다. 그런 후에 연공을 시작하면 표면의 세포부터 개변되기 시작하는데, 표면세포와 분자가 개변되기만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곧바로 신선(神仙)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가 높게 수련한 것이 아니고 그는 막 신체의 제1층 이 분자입자를 개변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방금 삼계의 첫 번째 층천(層天)에

으며,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바 모두 가지고 갈 수 없다. 오직 수련뿐인데, 불법(佛法)은 당신이 일단 얻은 후에는, 영원히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올 수 있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그는 바로 가장 진귀(珍貴)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든지 모두 그에게 법을 주는 것보다 못하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대법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특히 그는 가장 위대한 진리이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홍법(弘法) 일을 한다. 한 기간 동안에 잘하지 못했으면 그럼 다음번에 잘 하라. 그러나 선(善)을 수련하는 자는 어쨌든 중생에게 자비(慈悲)를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제자: 3, 4년 전에 이미 대량의 수련생들이 개공개오(開功開悟)하였습니다. 이 3, 4년 후 여전히 줄곧 인간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수련을 하는데, 층차(層次)도 여전히 끊임없이 제고되고 있습니까?

사부: 우리 이렇게 말하자.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련하는데, 원만(圓滿)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어서 수련해야 한다. 수련 중에서 관(關)을 잘 넘긴 사람, 빨리 수련한 사람, 정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관

을 잘 넘기지 못하는 사람, 그다지 정진하지 못하는 사람, 시간을 길게 끄는 사람이 있다. 원만에 이른 사람과 원만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모두 말하지 말라. 매 수련생이 오직 여전히 여기에 있다면 모두 수련해야 한다.

제자: 그런 형체가 없는 신(神), 유신산선(遊神散仙)과 같은 신은 자신의 천국(天國)이 없습니까?

사부: 형체가 없는 신은 떠돌아다니는 유신산선과는 같은 것이 아니다. 유신산선, 그것은 내가 속인의 말로 이야기 한 것인데,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뜻을 알면 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 일부분에게는 천국세계가 없다. 내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마치 유신산선처럼 도처를 다닌다. 사실 과거의 도(道)는 바로 이리하였다. 도교(道敎)는 후기에 건립한 것이며, 천상(天上)에서 과거의 도(道), 그는 세계가 없다. 그 자신이 수련 성취하여 원만에 이르면 우주 중에서 자유자재 하므로, 어쩌면 산 동굴 하나를 찾아서 예쁘게 꾸며 자신이 거기에서 청정자재(淸靜自在)할 수도 있다. 형체가 없는 신은 그가 생겼을 때 바로 형체가 없거나, 혹은 수련하여 그 경지 중에 도달했을 때 형체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형체를 변화해 낼

한 번 반복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에게 배치한 이 한 갈래 길이 당신으로 하여금 걸어 올라가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마 대법 수련생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모두 아주 좋은 길을 배치했는데, 그럼 어떻게 수련하느냐 하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 사부가 문으로 이끌지만 수행은 개인에게 달린 것이다!

제자: 사존님께서는 『전법륜(轉法輪)』 91쪽에서 “고층차 수련에 이르면……, 오직 당신이 心性(썬썬)을 제고하기만 하면 당신의 공은 곧 자라며, 당신은 심지어 어떤 수법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고층차는 어떻게 체현되며, 우리는 어느 때에야 어떠한 수법도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부: 고대 수련 중 아주 많은 방법들은 초기에 그 동작이 아주 복잡했으나 최후에 이르러서는 모두 쓸모가 없어졌다. 최후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어떤 수법도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모두 거기에 앉아 조용히 수련했을 뿐, 외형적인 동작이 없었다. 그러나 당신들이 오늘날 수련하는 이 대법은, 과거에 당신이 어떠한 특징을 지녔던 생명이었든지, 당신은 모두 내가 오늘날 당신에게 가르쳐 준 이 방식에 따라 수련해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내가



내려와서 인연을 맺고 법을 얻는 이가 있었으므로, 나는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어 그 연(緣)을 맺어야 했다. 후에 전생할 수 없을 때에는 분신(分身)하여 전생하였다. 같은 생에 아마 몇 사람이 모두 다 나였을 수 있다. 농담을 했다. (박수)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우리가 수련한 후, 사부님께서 우리 자신이 살생한 생명을 우리 자신의 세계로 장차 제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다만 나한(羅漢)이나 혹은 보살(菩薩)로 수련 성취하여 자신이 주재하는 세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우리 여기에 앉은 때 수련생에게, 내가 당신에게 모두 원만(圓滿)의 길을 열어 주었다. 어느 경지 중에서 수련 원만에 이르는가를 당신들은 모두 고려하지 말라.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는 모두 처리할 방법이 있다. 나는 다만 개괄적으로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하게 하는 것에 관해 말했을 뿐이며, 어떻게 변화시켜 주느냐하는 그것은 물론 모두 방법이 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업력을 깨끗이 갚지 못한다면 당신은 원만에 이를 수 없는데, 아마 당신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을 수 없을 것이다. (열렬한 박수) 나는 다시

수 있다. 형체가 없는 신은 흔히 모두 상당히 높다. 그가 무슨 모양을 생각하기만 하면 바로 그 모양이 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데, 그는 너무나 번거로운 일로 여긴다. ‘그렇게 해서 뒤틀하겠는가, 너무나 번거롭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아무 것도 없다.’ 물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의 사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

제자: 다른 공간 중에서 생긴 생명은, 일단 존재하기만 하면 그 층차 중의 법(法)을 구비하는데, 그 층차 중에서 생긴 것은, 바로 그 층차 중의 법이 생명에게 제정(制定)해준 표준 중에서 생긴 것입니다. 인간세상의 영아(嬰兒)에게는 기나긴 깨어남이 있을 뿐, 외부에서 배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부: 삼계를 제외하고는, 부동한 층차에서 생긴 생명 특히 신(神)의 공간은 반드시 그 한 층 생명표준으로서, 역시 그 한 층 법이 육성한 것이다. 신의 경지에서 생긴 영아 역시 신이다. 인간에게 깨어남이나 학습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말하자면, 현재의 이른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변이된 것이며 비인류(非人類)적인 것으로서, 생명의 본성에서는 퇴보한 것이다. 깨어남이라고 말할 수 없고 미혹(迷)속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사실은 부패해 가는

과정이며, 순진(純眞)을 잃어가는 과정이다. 사람은 그것을 발전과정이라고 부르지만, 신은 그것을 퇴보과정이라고 부른다.

제자: 전생(轉生) 시기의 세뇌(洗腦)는 어느 신이 주재합니까?

사부: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며 호기심이다. 어떤 신이 책임지라고 해도 되지만, 부동(不同)한 생명은 부동한 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표준은 하나이므로 당신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형상적으로 말하자면 삼계 내의 생명의 전생(轉生)을 관리하는 신이 책임지고 있다.

제자: 존경하는 리홍쯔(李洪志) 사부님, 토론토 법회에서 우리는 외국에서 간 많은 제자들과 법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사부님께 문제를 올렸는데 전부 이른바 선별자에 의해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사부: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사실 1, 2천 명의 법회에서 매 한 사람마다 문제가 하나씩 있으면 그럼 우리는 내일 저녁에나 끝내야 한다. 그렇다면 대답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

야 하는가, 선별해야 한다. 선별은, 아마 그 중 어떤 것은 정말로 사부가 해답해 주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선별되지 못하고 제외될 수도 있다. 설령 이렇지라도 여러분은 법 공부 중에서 반드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사실 그들이 선별할 때 내가 그들에게 한 가지 원칙을 알려주었다. 정치문제를 당신은 나에게 가져오지 말고, 지식을 구하는 문제도 되도록 적게 가져오고, 대법수련과 무관한 일은 되도록 선별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우리 법회의 질을 보증하고자 하는, 바로 이 목적이다.

여기에는 두 방면의 요소가 있다. 물론 그들 선별하는 수련생 역시 수련인이라, 아마 수련 중에 속하는 중요한 문제를 선별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데, 가능한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이후에 이 일을 더욱 잘할 것이다.

제자: 루이 14세는 프랑스 역사에서 끝없이 휘황찬란하여 마치 태양과도 같습니다. 그의 元神(웬션)은 천상(天上)에서 온 것이 아닌지, 제가 깨닫기에 루이 14세는 바로 사부님께서…….

사부: 나는 많은 나라에서 전생(轉生)했는데, 거의 어떤 사람이든 다 전생해 본 적이 있다. 때로는 전생해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부동(不同)한 역사시기에 모두 세상에